

증례 V - 5

**전치부 반대교합을 동반한 수직고경 감소환자의
보철적 수복증례**

최우식, 계기성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수직고경의 감소가 있어 저작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적절한 교합평면을 설정하고 교합관계를 개선시켜서 심미적, 기능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수직고경을 증대시킨 상태에서 수복하는 것은 이갈이나 근 피로, 치아, 근육 및 관절의 동통, 두통, 치아의 함입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시 보철물이나 splint 등을 이용한 과도기적인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인 보철수복의 상태에 환자가 적응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치부의 반대교합을 동반한 총생은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전방유도를 감소시키고 구치유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병적 교합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교정치료는 치아의 이동을 통하여 치아의 배열을 수정함으로써 심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건강한 구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치주질환이 심하여 치아이동이 불리하거나 그 배열이상이 미미할 경우 고정성 보철수복으로 치관을 재형성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심미성과 전방유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수직고경의 회복을 위해서 완전 구강회복술이 계획되었으며 반대교합양상이 미미하였으므로 고정성 보철물과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수복하여 심미성과 기능을 회복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